

국어 항진명제에 대한 의미 연구*

이 정 애
(전북대학교)

<Abstract>

Lee, Jeong-Ae. 2010.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 tautology.** *Korean Semantic*, 33. This study aims to analyse Korean equative tautology. The interpretation of tautology has been discussed through two approaches. One is the Gricean's perspective, which analyses tautology as a conversational implicature (radical pragmaticist's position). Wierzbicka's radical semantic position, which states that tautology is dependent upon certain language-specific syntactic constructions (radical semanticist's position). This study applies Wierzbicka's view and methodology to Korean tautologies. Because Wierzbicka's semantic representation with 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offers an efficient method to specify the meaning of Korean tautology. As a result, Korean nominal tautologies can describe the following: 1) recognition and negation of generalization; 2) resignation of human nature; 3) acceptance of reality; 4) recognition of irreducible difference; 5) recognition of indifference; 6) limitations of objects; 7) irreversible state of affairs; and 8) emphasis. Scrutinizing Korean tautology, this paper explicates the language- and culture-specific of Korean and hopefully can contribute in the understanding and education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 1)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1-AL0003)
 - 2) 본 논문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최전승 교수님(전북대학교), 김규남 교수님(전주대학교), 서형국 선생님(전북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 어문교육학과 박사과정 안재란 선생님·이중진 선생님·나영은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심사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핵심어: 항진명제(tautology),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 언어특수성(language-specific), 의미 기술(semantic representation), 의미설명(explication), 급진적 화용론자(radical pragmaticists), 급진적 의미론자(radical semanticist), 자연 의미론적 메타언어(NSM)

1. 서론

‘애들은 애들이다, 가을은 가을이다, 회장은 회장이다’와 같이 ‘N은 N이다’(또는 ‘NP는 NP이다’)라는 통사적 구조를 가진 문장들은 논리 형식 ‘P=P’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되며, 언제나 명백한 동어 반복으로 이루어지면서 필수적으로 참이 되는 항진명제로 규정한다(Kalish & Montague 1964: 74, Wierzbicka 2003: 453 재인용). 이러한 문장들은 실제로는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상의 발화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N은 N이다’처럼 언제나 참이 되면서, 한 번도 부정될 수 없는 사실,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전달하는 항진명제들은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잉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화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또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왜 일까?

항진명제들의 의미에 대한 문제는 Grice(1975)가 양의 격률을 위반하는 대화함축으로 설명한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항진명제는 화자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어김으로써 발생하는 함축으로 본 것이다. 이 항진명제의 함축에 대해서는 항진명제의 발화를 재해석하려는 많은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Grice의 이론을 수정하고 확장시켰다.

가령 Ward & Hirschberg(1990)은 항진명제에서 실제 화자가 의미하는 것은 발화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화자가 일반 대화 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GCI)을 전달하는 데 있어 항진명제적 발화는 양의 격률 이외에도 관계의 격률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Levinson(2000)도 그의 GCI이론에서 그 발화가 발생된 맥락에서 적절하였을

때 이 함축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즉 새로운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나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항상 참이 되는 점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어떤 대안 표현들도 양과 관계의 격률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이미순 2009 참조).

다른 한편 이미순(2009)에서도 Levinson(2000)의 일반 대화 함축이론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향진명제의 함축에 의한 재해석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미순(2009)은 화자가 의사 소통에 가장 필요한 양만 가지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정보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발화를 위한 향진명제는 양의 격률과 관계의 격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Ward & Hirschberg 1990), 그 발화가 발생한 맥락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발화를 향진명제의 발화의 유형이 전달하고 있다는 적합성(Relevance)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화자의 맥락과 관련한 발화가 청자의 인지적 정보처리 수준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들 중에서 상호적으로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추론될 수 있는 데에는 결국 향진명제의 발화가 Grice의 주장대로 양의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발생하는 대화 함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보 제보의 원리를 준수함으로써 극히 최소의 발화가 주어진 맥락에서 가장 적합한 발화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함축의 해석에 있어서 언어 보편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향진명제는 언어 특수적인(language-specific) 태도의 의미임을 주장한 Wierzbicka(1987)와 Fraser(1988)를 들 수 있다. 특히 Wierzbicka(1987, 2003)는 Levinson(1983)이 주장한 향진명제의 함축들이 양의 격률에 의한 대화 함축이라면 일반적으로 언어 보편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데, Levinson(1983)이 제안한 대로, 오직 'War is war'에 대한 함축이 '언제나 전쟁에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전쟁이므로 이 특별한 재난을 슬퍼해봤자 소용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족 중심주의(ethnocentrism), 특히 영어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하며 그 논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영어의 향진명제의 구문들 중에는 다른 언어에는 찾을 수 없으며 설사 그에 대응하는 향진명제의 예가 있다고 하여도 전혀 다른 의사소통적 의미(communicative import)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 예로 러시아에서는 동일한 향진명제의 의미가 '전쟁에서 끝까지

격렬하게 싸우겠다는 다짐'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진명제의 구문은 관습적으로 의사소통적 의미가 기호화된 것이며, 언어 독립적인(language-independent) 화용적 격률로 그 의미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의 '항진명제적 구문들'이 오직 보편적인 화용 원리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고 하였다.

간략히 정리하면, 지금까지 항진명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그라이스학파(Gricean)의 대화함축의 관점, 그리고 또 하나는 Wierzbicka(1987)의 항진명제에 대한 언어 특수적인 의미론적 관점이다. 전자는 함축이 의미라기보다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라이스식 일반 대화 함축의 이론 틀 안에서 화용적 분석을 함으로써 항진명제 함축의 일반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들은 일반 대화 원리에 의해 함축을 허용하고 청자는 그 함축된 것을 추론하는 화용적 해석이 문제라고 보았으며 어떻게 그 의미들이 기술될 수 있는가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반면에 후자는 맥락은 언어적 분석의 실패에 대한 변명이며, 항진명제의 구문은 언어와 문화에 따라 특수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의미는 적절한 의미론적 기술에 의해 명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통 이들을 나누어 '급진적 화용론자'(radical pragmaticists)와 '급진적 의미론자'(radical semanticists)라고 부르기도 한다(Cole 1981, Fraser 1988: 216).

본 연구는 Wierzbicka(1987, 2003)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국어의 항진명제의 유형들을 대상으로 그 항진명제들의 의미 기술에 목적을 둔다. 사실 항진명제의 함축이 반드시 그 발화가 발생할 때 그 발화의 맥락과 관련한 화용적 분석에 의한 재해석의 문제라면, 이것은 언어보편성을 지니게 되며 국어라는 언어 특수적 상황은 고려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청자와 화자 간의 어떤 추론에 의한 함축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원리 또는 원칙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며, 이는 이미 언어와 독립적인 화용의 문제인 것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항진명제들의 의미는 국어 특수적인 관점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그 의미들을 하나의 분석적 틀에 의해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급진적 의미론자의 향진명제에 대한 의미 기술

앞에서 기술한 바대로 Wierzbicka(2003: 398)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Gricean학파가 제시한 향진명제의 발화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전혀 다른 의미론적 분석의 틀로 향진명제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살펴본다면 그가 왜 급진적 의미론자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첫째, 향진명제들의 용법과 의미가 보편적이고, 언어 독립적인 원리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 Wierzbicka의 이 주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로써, 향진명제들은 Grice가 제시한 격률들, 즉 언어 독립적인 화용적 원리에서 그것도 오직 ‘영어의 향진명제’의 용법만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급진적 화용론자’에 대한 반박이었다. 실은 향진명제가 각 언어의 고유한 구문으로서 언어 특수성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들은 적절한 의미론적 기술로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진명제가 언어보편적인 문제인가 하는 것은 영어의 ‘boys will be boys’가 언어마다 달리 해석되거나 또는 아예 특정 언어에는 그러한 표현이 성립되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어의 ‘East is East’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향진명제라면,¹⁾ 국어의 ‘너도 너다’는 상대에 대한 연민과 체념 그리고 질책이 긍정적이거나 따뜻하게 표현되어 있다. 물론 언어마다 이처럼 다른 향진명제의 구문들이 보편적이며 격률과 같은 언어 독립적인 원리들로 설명될 수 있으며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지만, 극히 부분적인 설명에 그칠 수 있으며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함축을 해석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Wierzbicka(2003)는 ‘Boys are boys’와 같은 향진명제는 필수적으로 참인 문장이라고 진술한 Levinson(1983)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향진명제는 격언이나 속담이 아니며, ‘참’이나 ‘거짓’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정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특정

1) ‘East is East (and West is West)’와 ‘White is White (and black is black)’ 등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너무나 독특한 속성으로 인해 그들 사이의 좁힐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향진명제이다(Wierzbicka 2003: 413).

태도란 예를 들면, 관용에 대한 요구, 즉 일종의 훈계(injunction)라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해석될 문제가 아닌, 언어 특수성의 의미라고 하였다. 가령,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항진명제의 구문인 ‘Boys are boys’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우선 그 구문의 의미가 영어에서는 ‘우리가 소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만한 그런 제멋대로인(unruly) 행동과 같은 것’을 함축한다고 했을 때, 그 함축적 의미를 한국인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제멋대로’의 의미도 분명하지가 않으며, 그 의미에는 소년에 대한 관용적인 화자의 태도가 명시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항진명제의 유형에서는 ‘?Sadiests are sadiests’, ‘?Nazis are Nazis’처럼 일반적으로 영어의 화자들이 관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문장이 왜 이상한 것인지를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이 예측할 수 있는 설명 기제가 없다(Wierzbicka 2003: 398).

또한 Levinson(1983)의 설명은 ‘Boys are boys’에 초점을 둬으로써 ‘Boys will be boys’의 양태 조동사 ‘will’의 의미설명을 도외시켰을 뿐 아니라 ‘*Wars will be wars’, ‘*Business will be business’가 왜 성립될 수 없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고 Wierzbicka는 지적하였다. 즉 ‘will’을 가진 항진명제에는 인간의 본성이 억압될 수 없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년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되며, 변화될 수도 없는 존재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소년다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멋대로 하게 두는 화자의 관용적 태도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일 급진적 화용론자들이 하나의 구문이 갖는 의사소통적 의미(communicative import)는 의미 문제가 아니라 함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한 언어 내의 항진명제의 차이점 그리고 다른 언어들 간의 의사소통적 의미의 차이점들을 기술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며, 모호하게 추정된 함축적 의미만을 기술할 뿐이라고 하였다.

셋째, 대화의 함축을 설명하는데 노력했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맥락의 문제에 맡겨버림으로써 의미설명의 부재를 만들어 버린 점이다. 항진명제의 함축을 설명하기 위해 Levinson 그리고 Grice도 역시 발화의 맥락은 맥락의 문

제로만 남겨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진명제의 의미가 금언, 속담, 관용어구와 같이 특정 맥락에 의존하지 않는 사전적 태도와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단어 ‘war’의 의미는 ‘War is war’의 함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이 구문이 ‘boys are boys’와 유사한 의미를 함축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둘 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수용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단수 추상명사 구문인 ‘War is war’에는 ‘boys’가 갖는 관용적인 태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론 Levinson(1983)의 해석이 전적으로 틀리거나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러한 함축의 해석이 다른 항진명제의 구문과의 차이와 유사성을 설명하지 못하며 또한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항진명제의 보편성이 아니라 언어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광범위하게 추론된 함축보다는 국어에 관습화된 언어 특수적인 의미를 기술할 것이다.

3. 국어의 항진명제의 의미론적 기술

국어의 항진명제는 대부분 명사로 된 논리적 동어반복, 즉 ‘N은 N이다’의 구문 형태를 이루고 있다.²⁾ 일부의 항진명제, 즉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와 ‘없는 자는 없는 자이다’와 같은 ‘NP는 NP이다’의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은 명사로 된 단순한 항진명제의 유형으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³⁾ 그러나 단순한 명사 형태의 항진명제가 무수히 생산될 수 있지만 모든 명사가 항진명제의 유형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한 어떤 항진명제는 쉽게 어떤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다른 많은 항진명제들은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없다. 즉 항진명제의 의미가 어휘적인 그리고 맥락적인 차이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항진명제들은 중의적

2) 국어 항진명제의 의미해석은 최종열(1992)의 논의가 있다.

3) 국어의 항진명제는 등식형(equatives) ‘N은 N이다’의 유형 외에도, 조건형(conditionals)인 ‘if P(then) p’의 유형, ‘먹어야 먹는 것이다’, ‘죽어야 죽는 것이다’ 또는 ‘가야 가는 것이다’, ‘와야 오는 것이다’ 등이 있다. 또한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못하는 것이 없다)’와 같은 유형도 있다.

(ambiguous)이기도 하다. 가령 ‘아버지는 아버지이다’라는 항진명제는 ‘아버지’가 일반적 지시일 때 가정과 사회에서 언제나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일반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어떤 가정에서 그 아버지만이 지닌 어떤 특징적인 행위, 가령 언제나 늦게 귀가하여 집안을 어지럽히는 아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난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버지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화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라는 의미가 된다. 또 ‘자장면은 자장면이다’라는 항진명제가 매우 맛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자장면의 맛이 다 그렇지, 별 맛이겠어’라는 의미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수히 생산되는 단순한 형태의 항진명제를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기보다는, 항진명제의 유형에 따른 몇 가지의 의미론적 기술의 틀을 제시하여 그 의미를 기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론적 기술의 틀은 Wierzbicka(2003)가 제안한 메타 의미론적 방법을 국어에 적용한 것으로 써, 이미 Yoon(2003, 2007), 이정목(2008), 이정애(2006, 2007, 2008) 등에서 시도한 바 있다.4)

- 4)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미설명은 아래와 같이 국어의 의미원초소를 기본으로 하여 치환한 것이다. 이들 원초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기본 문장(canon sentence)을 이루고 그 문장들이 하나의 구성소(exponent)가 되어 전체적인 의미설명(explication)을 이루게 된다. 의미 원초소는 인간의 보편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 원초소와 그 구성소들은 의미 차이 없이 다른 언어의 의미 원초소와 쉽게 치환이 가능하여 모든 언어로 명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인간의 보편적 개념들(국어의 경우)

실재어	나, 너, 누구/어떤 사람, 무엇/어떤 일(것), 사람들, 몸
관계적 실재어	(~의) 종류, (~의) 일부
한정어	이, ~같은, 다른
수량어	한/하나, 두/둘, 많-, 몇/약간, 모든
평가어	좋-, 나쁘-
묘사어	크-, 작-
심리적 술어	생각하-, 알-, 원하-(~V+고 싶-), 느끼-, 보-, 듣-
발화어	말하-, 말, 사실
행위, 사건, 이동, 접촉	하-, 일어나(생기다-), 움직이-(옮기-), 당-

3.1 일반화의 인식과 부정

- (1) 가. 애들/어른은 애들/어른이다.
- 나. 여자/남자는 여자/남자다.
- 다. 가을은 가을이다.
- 라. 한국인/미국인은 한국인/미국인이다.

위의 향진명제는 우리 문화권 내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N의 범주가 있으며 화자는 특정한 N이 일반화된 개념 범주의 N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옹호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이다. 때로는 이러한 일반화가 사회적 전형성(social stereotypes)으로 형성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개인마다 부정확하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를 겪을 수 있다(Lakoff 1987; 임지룡 1997: 67). 가령 ‘남자’라고 한다면 우리 문화에서 기대하는 어떤 전형적 보기가 있을 수 있으며 그 전형적 보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남자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행동이나 속성, 또는 외형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남자는 남자다’라고 할 경우, 화자는 전혀 남자다운 속성이나 모습을 예상하지 않았던 한 남성을 두고 그 역시 남자임을 인식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전형성의 타당함에 대한 동조가 된다. 다음의 예처럼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으며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 그리고 괄호 안의 내용도 향진명제에 수반되는 태도로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위치, 존재, 소유, 특정화	(~에)있다, (~가)있-/ 존재하-, 갖-, ~이다
삶과 죽음	살-, 죽-
시간	언제/때, 지금, 전(에), 후(에), 오래(동안), 잠깐(동안), 얼마(동안), 순간
공간	어디/곳, 여기, 위, 아래, 멀-, 가깝-, 쪽, 안
논리적 개념	안(V+지 않-), 아마 (으)르 것-, ~(으)르 수(가) 있-, (왜냐하면) ~때문(에), (만약)~(으)면
증가어, 강화어	아주, 더
유사성	같-

이 정 에

- (2) 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을 보며) 고3은 고3이다.
- 나.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놀러온 것을 보며) 일요일은 일요일이다.
- 라.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고 땀이 나지 않는 것을 보니) 가을은 가을이다.

이러한 항진명제의 N의 범주에는 추상명사나 보통명사 단수나 복수 모두 가능하지만 모든 N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나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전형성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더 활발하게 사용된다. 가령 ‘일요일은 일요일이다’는 쉽게 이해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일은 수요일이다’는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요일’에 형성된 전형성만큼 ‘수요일’에 형성된 전형화의 개념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고3은 고3이다’는 자주 사용되지만 그에 비해 ‘?고2는 고2다’와 ‘?고1은 고1이다’도 생산적이지 않으며,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삼촌은 삼촌이다’는 가능하지 않는 것도 그 이유이다. 여기에는 특징인인 경우도 항진명제가 가능하다. 즉 ‘김영삼은 김영삼이다’는 ‘김영삼’이라는 인물에 대한 특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김철수는 김철수이다’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의미론적 틀로 설명할 수 있다.

(3) 애들은 애들이다

- 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다
 -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한다
- 나.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다:
 -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같지 않다
- 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 라. 우리는 알아야 한다
 -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모두 이와 같다
 -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미설명틀의 틀(frame)은 항진명제의 의미 설명을 위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애들은 애들이다’라는 항진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지적 사고과정을 명시하여 하나의 의미설명의 틀로 담아내고 있다. ‘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을 명시화된 것으로 일반화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와 ‘다’는 일반화된 사실을 수용하지 않는 일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화자는 그러한 일반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라’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와 같으며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 일반화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 국어에서는 ‘서울은 서울이다’, ‘고향은 고향이다’, 그리고 ‘항구는 항구다’, ‘설은 설이다’, ‘명절은 명절이다’ 그리고 ‘장날은 장날이다’ 등의 항진명제들도 자주 사용된다. 여기에는 일반화된 전형성의 타당함에 대한 동조일 뿐 이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한편 국어에서는 항진명제가 부정되는 형으로 ‘N은 N이 아니다’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는 화자의 개념 범주에 있는 특정한 N이 일반화된 N의 범주에 부정되는 것으로써, 우리 문화권 내에서 N의 범주로 형성되어 있는 원형성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원형성을 이루는 특성은 우리 문화에서 기대하는 전형적 보기(*typical examples*)나 사회적 스테레오타입(*social stereotypes*) 등으로 나타나며(Lakoff 1986: 33-36, 1987: 77-90; 임지룡 1997: 67-68), 특히 부정되는 내용의 항진명제는 특정의 N이 N의 원형성의 보기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항진명제는 가령, ‘함께 패를 지었건(?) 밖에서 망을 보았건 담을 넘어 물건을 집어내었건 다 같이 도둑은 도둑이다.’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즉 이 항진명제는 ‘도둑’의 의미가 어떻게 원형적으로 범주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경우는 다 도둑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⁵⁾

(4) 가. 자유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나. 가사를 버려야 할 노래는 노래일 수 없다.

5) 본고에서 제시된 항진명제의 일부는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을 기반으로 추출하였으며, 자세한 출처는 생략하였다. 도움을 주신 고경태 선생님(고려대학교)과 서형국 선생님(전북대학교)께 감사드린다.

반면에 부정되는 항진명제는 다음과 같은 구어체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5) 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
- 나. 웃는 것이 웃는 것이 아니다.
- 다. 먹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다.

위의 항진명제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전형성을 이루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그 전형성을 갖추지 못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로 사용되는 이러한 부정의 항진명제는 실제의 육체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적 전형성으로 형성되어 있는 어떤 범주, 가령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추고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는 것’에 형성되어 있는 전형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러한 기본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살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웃는 것이 웃는 것이 아니다’도 역시 지금의 실제 얼굴은 웃는 모습이지만 전형적으로 웃는 모습에서 동반되는 심리적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웃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따라서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먹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니다’도 실제로는 먹고 있지만, 먹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⁶⁾

3.2 인간 본성에 대한 체념적 인식

외모가 성숙해 보이는 어린아이가 성숙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린애다운 행동이라고 기대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애는 역시 애다’라는 항진명제는 앞서 말한 ‘일반화의 인식’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철부지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애가 갖는 본성의 한계를 인식한 경우, 즉 인간 본성의 어떤 체념을 의미할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애는 애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어의 항진명제에서는 인간 본성이나 대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체념적 인

6) 이외에도 ‘속이 속이 아니다’와 ‘돈이 돈이 아니다’ 등의 항진명제들이 자주 사용되지만 그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정 에

라. 나는 그것 때문에 나쁜 무엇인가를 느끼지 않는다

마. 나는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3.3 현실 상황의 수용

(9) 가. 법은 법이다.

나. 약속은 약속이다.

다. 게임은 게임이다.

국어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위와 같은 항진명제의 구문은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항진명제의 쓰임은 주로 인간 행동의 규칙과 관련하여 있으며, ‘법, 약속, 내기, 시험’과 같이 항진명제에 쓰인 명사가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당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따라서 ‘법은 역시 법이다’라고 할 경우는 ‘법’을 지키고 싶지 않더라도 법이니까 지켜야한다는 법의 정당성과 그에 대한 의무적 의미이며 이것은 법이 갖는 정당성이므로 ‘일반화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법, 약속, 내기, 시험’과 같은 명사의 항진명제가 사람이 지켜야할 의무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행위의 결과를 별 수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체념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법은 법이니까 안지킬 수 없어서 나갔다’ 또는 ‘친구말마따나 내기는 내기다’ 등처럼 ‘법’ 또는 ‘내기’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체념적 뜻이다. 이러한 체념은 현실 상황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수동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체념적 수용 또는 현실 상황의 수용은 다음의 항진명제의 구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0) 가. 도선생도 우리 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니까 네 말대로 선배는 선배다.

나. 아무리 행색은 거지라고 하여도 선비는 선비인지라 주식을 제공하고 축시를 쓰라고 하였다.

- 다. 표가 둘로 나누어진 데에 따른 반사이익이었지만 어쨌거나 승리는 승리였다.
- 라. 농학과에서 배우는 곡물이라도 식물은 식물이니까 하는 생각에 5년 동안 방송 수업을 들었던 그는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소기의 목적은 거둘 수 있었다.
- 마. 종내 끝난 얼굴을 풀지 않고 나 화났소 하는 어린애같은 시위를 하려드는 민구가 우습기도 하였지만 싸움은 싸움인지라 경혜의 기분이 유쾌할 리 없었다.

현실 상황을 수용해야 하는 의사소통적 의미는 다음의 예에서도 보인다.

- (11) “그래도 그렇지. 다른 형제도 있으면서 객지에 있는 맏동서를 오라는 건 좀 그렇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아줌마도 돈벌이 나왔는데 월급 좀 더 드릴 테니까 간병인 쓰면서 다른 가족이 모시면 안 돼요?”
- “저도 그 생각 왜 안했겠어요. 사실 저도 가기 싫어요. 돈도 돈이지만 가서 노인네 대소변 받아낼 일 생각하면 끔찍해요.”(오마이뉴스 2010.8)

한편 상황의 순응과 수용을 권유하는 국어의 항진명제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식된 ‘좋은 것’은 청자 개인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러나 ‘좋은 것’은 사실 화자의 판단이 아니라 화자의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인식된 일이므로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에도 ‘좋은 일’로 수용할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는 청자에게 그럭저럭 넘어가거나 묵인하라고 종용할 때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세상사는 일의 한 방법임을 넉넉히 암시하면서 청자에게는 손해이지만 전체에게는 득이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현실 상황의 수용’에 대한 의미설명은 다음과 같다.

- (12) 법은 법이다

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금보다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 정 애

누구나 어떤 때에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 일은 나/다른 사람에게 좋을 수도 있다
그 일은 나/다른 사람에게 나쁠 수도 있다
나. 나는 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다
그 일은 지금 나에게 나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다. 나는 생각한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지금보다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누구나 그것을 해야만 한다
만일 지금이 그것을 해야 하는 때라면
누구나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4 차이에 대한 인식

국어에서는 ‘ N_1 은 N_1 이고 N_2 는 N_2 (이)다’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항진 명제가 있다. 이 형식에는 화자가 두 개의 명제에 대한 차이를 강조하여 서로 다른 것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13)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나.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들 항진명제는 대비되는 두 가지의 일이 분명할 경우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뒷부분을 생략하고 ‘공은 공이고’, ‘그건 그거고’, ‘너는 너고’로만 사용된다. 이러한 형식은 대비되는 두 가지의 일에 대한 차이를 강조한다. 다음의 예들이다.

- (14)가.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나.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다.
다. 결혼은 결혼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라.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 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 바. 군대는 군대고 대학은 대학이다.

또한 ‘참외는 참외고 사람은 사람이니 철부지 아이들이 그깟 놈의 참외 몇 개 따먹었기로서니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니?’라고 했을 때에도 ‘참외’와 ‘사람’을 구별해야 하며, 참외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어떤 항진명제는 동일한 형식의 항진명제가 차이에 대한 강조보다는 전혀 관계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만일 화자가 전혀 관계없는 두 개의 일이나 대상을 비교했을 때 청자가 이에 대한 거부와 함께 비교당하는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한다. 애초부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 비교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랄 수 있다.

가령, 엄마가 자기 아들과 친구의 아들(가령 철수)을 서로 비교했을 때 그 아들은 ‘철수는 철수고 나는 나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때 화자인 아들은 철수와 나는 같지 않고 서로 관계없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한 감정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아내가 옆집 남편과 비교하는 말을 들던 남편이 ‘옆집남자는 옆집남자고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남편은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손상했으며, 이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임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항진명제들의 의미설명이다.

(15) X는 X이고 Y는 Y다

가. 누구나 알고 있다: X와 Y는 같지 않다

X와 Y는 무엇인가 서로 다른 것이 있다

나.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X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Y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둘에 대해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다.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 나는 말하기를 원한다:

만일 누군가 X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지금 나는 누군가가 X에 대한 것만 말하기를 원한다

이와 동시에 Y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3.5 차이 없음의 인식

3.4와 대조적으로, 외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는 피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지라도, 실제로 두 대상에는 차이가 없는 동일함 또는 거의 동일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16) 가. 군대는 군대다.
- 나. 농사는 농사다.
- 다. 거기서 거기다.

가령 ‘군대는 군대다’의 경우, 군대에 가서 고생을 거의 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냈다고 자랑하거나, 아니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불평하거나 간에 둘 다 ‘군대’라는 상황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쓸 수 있다. 구어형으로만 쓰이는 ‘그놈이 그놈이다’와 ‘거기가 거기다’의 항진명제는 차이를 뜻하기보다는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동일함은 과거에 비교할 때 현재의 상황이 더 이상 기대하거나 나올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3.1의 일반화의 인식에 해당되는 항진명제가 결국은 ‘차이 없음’의 인식에 대한 의미일 수도 있으나, 이 항진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다르다.

다음은 이와 같은 항진명제들의 의미설명이다.

- (17) 군대는 군대다

- 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은 매우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 나. 나는 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다:
 -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종류의 다른 것들과 같지 않다
 - 그것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쁘다
- 다.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 라.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것들은 같다
 - 이러한 종류의 하나는 다른 것보다 조금 낫거나 조금 나쁠 수 있다
 - 그것은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쁠 수는 없다

3.6 대상의 한계에 대한 인식

- (18) 가. 영화는 영화다.
- 나. 역사는 역사다.
- 다. 폰트는 폰트다.
- 라. 과거는 과거다.
- 마. 남편은 남편이다.

위와 같은 향진명제는 대상의 한계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또 다른 개념이 암시되면서 N의 한계를 의미한다. 가령, ‘영화는 영화다’에서는 ‘현실’ 개념이 암시되면서 ‘영화’의 한계를 나타내며, ‘역사는 역사다’는 ‘현재’의 개념이 대비된다. ‘폰트는 폰트일 뿐 사실이 아니다’ 또는 ‘냄새는 냄새일 뿐 결코 향기라 할 수 없다’와 같이 상황에 따라 이러한 대비되는 개념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인터넷 댓글에서 사용된 ‘없는 놈은 없는 놈일 뿐이다’의 경우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긴, 오르건 그것은 돈 한푼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아파트의 가격은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예들에서는 ‘어디까지나, 다만, 단지, 그저’ 등의 부사어들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한계에 대한 인식’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 (19) 가. 그러나 이 원칙은 원칙일 뿐 아무도 지키지 않았고 아무도 막지 않았다.
- 나. 하지만 한국인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일 따름이었다.
- 다. 난 할머니의 헛소리는 다만 헛소리일 뿐이라고, 조카의 말을 일축하였다.
- 라. 돈이면 언제든지 행복하리라 생각하였던 그녀의 환상은 단지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 마. 규정은 그저 규정일 뿐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환의 실정이다.
- 바. 배급량이 잡곡 몇 %, 입살 몇% 이라는 말이나 1인당 몇 그램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음은 이와 같은 향진명제들의 의미설명이다.

이 정 애

(20) 영화는 영화다

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것은 모두 이러한 종류의 것과 같으며 더 이상 이와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다.

나.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것은 이와 다른 종류의 것들과 다르지 않다

다.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것은 같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것은 더 이상 다른 종류의 것과 같지 않다

마.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종류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3.7 기타

국어의 항진명제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21) 가. 땅은 땅이며, 사람은 사람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나.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소는 소이요 개 아니며, 개는 개이며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다. 그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였듯이 우리는 서독이 아니고 북한은 동독이 아니다.

다음의 항진명제는 단지 항진명제가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예이다.

(22) 가. 참 알고 보니 문제는 문제다.

나. 큰일은 큰일이다. 2050년 한국이 OECD37개국 중 최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다. 그러나 한 살 어리다는 것을 안 뒤로부터는 그의 설치는 모습이 더욱 건방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다.

라. 역시 병석이 물건은 물건이더군요.

마. 어쨌든 일은 일이잖아요.

4. 국어 향진명제의 문화 특수성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향진명제의 의미들은 우리가 향진명제들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를 보여주는 향진명제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유형은 우리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동일한 향진명제가 다양한 유형에 속하기도 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의미구조를 갖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인은 군인이다’라는 향진명제를 사용한다면 우리 문화권에서만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생성될 수 있다. 첫째, 씩씩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군인은 언제보아도 믿음직스럽다(일반화의 인식), 둘째, 애인에게 아무리 큰소리쳐도 군대에 간 군인은 군인일 뿐이다(한계의 인식), 셋째, 계급이 높으나 낮으나 군인은 다 똑 같다(차이 없음의 인식), 넷째, 인기 걸 그룹을 보며 환호하는 것을 보니 참 군인은 어쩔 수 없다(체념적 인식) 등등이다. 이 향진명제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전혀 다른 의사소통적 의미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 향진명제를 네 개의 의미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Wierzbicka 2003), 이에 비해 단지 하나의 의미 구조만을 갖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Levinson 1983). 물론 많은 다양한 화용론적 추론을 가질 수 있으나 이를 맥락의 문제로 보았다면 의미 기술은 착수할 수 없으며, 향진명제에 반영된 특정 문화적 의미도 밝힐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향진명제들은 제스처나 간투사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재미있는 비유이다(Wierzbicka 2003: 446). 왜냐하면 향진명제들을 제스처나 간투사처럼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며, 그 자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self-explanatory)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관습적이고, 언어 특수성이며 문화적인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진명제에는 자연적이고 문화적 논리를 둘 다 갖고 있으며, 그것들이 자연성을 나타낼수록 문화성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향진명제가 ‘기본적 진리들’을 꽃을 수 있는 하나의 편리한 ‘다목적 꽃병’과 같은데 다만 기본적 진리들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향진명제들이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만이 아니라 언어 특수적인 문제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왜냐하면 국어의 많은 향진명제들은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번역된다고 해도 다른 언어 화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미들이기 때문이다. 향진명제들은 일정한 형식적 패턴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향진명제 속에는 특정 문화에서만 통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한 문화권에서 통하는 진리가 다른 문화권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으며, 특정 문화에서는 현명한 지혜가 다른 문화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속담처럼 여러 세대에 의해 검증된 지혜가 담겨있는 삶의 태도를 충고하는 것과 같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향진명제에 대한 의미 기술을 ‘일반화의 인식과 부정’, ‘인간 본성에 대한 체념적 인식’, ‘현실 상황의 수용’, ‘차이에 대한 인식’, ‘차이 없음의 인식’, ‘한계에 대한 인식’, ‘바꿀 수 없는 사실’, ‘강조’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의미 기술은 Wierzbicka(2003)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의미설명의 틀에서 기술하였다. 의미설명의 틀이란 몇 가지의 의미성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된 것은 다음의 네 개의 것들로 구성되어 반복 사용되었다. (1)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 (2) 나는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 (3)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4)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구성성분들은 원래는 일종의 단순화된 영어로 공식화된 것이지만 이를 국어로 번역하여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구성성분들은 매우 단순한 문법적 유형들에 기초하였으며, 보편적인 인간의 개념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개념들은 ‘나’,와 ‘너’ 그리고 ‘좋다’와 ‘나쁘다’, 그리고 ‘알다’와 ‘원하다’처럼 전 세계의 언어들에서 거의 모든 대응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것들이며 이들이 Wierzbicka(2003)에 의해 보편적인

‘의미적 원초소’로 지정되었다.

이 의미적 원초소들에 기초하여 ‘자연 의미론적 메타언어’(Natural Semantic Metalanguage)가 창안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 메타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설명을 하였으며, 따라서 보편적이고 언어 독립적인 관점으로 문화적 규범들과 문화적 다양성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 나아가 여기에서 사용된 메타언어들은 인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적 방식과 전략들을 탐구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이미순(2009), “항진명제 발화의 해석에 대한 재검토,” 담화와 인지, 16-2, 123-147.
- 이정목(2008), “NSM을 이용한 한국어 ‘기쁘다’류 심리형용사의 의미분석과 기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애(2006), “한국어의 메타언어적 의미분석을 위한 소론-동사 ‘깨다, 부수다, 쪼개다, 나누다’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3-1, 221-242.
- 이정애(2007),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화’의 의미분석,” 담화와 인지, 14-1, 149-171.
- 이정애(2008), “국어 색채어의 의미와 시각의 보편성,” 한국어 의미학, 27, 151-178.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최중열(1992), “항진명제 (tautology)의 의미해석”, 전주대 인문과학연구 창간호, 139-150.
- Cole, Peter(ed.).(1981),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Fraser, Bruce.(1988), “Motor oil is motor oil: an account of English nominal tautologies,” *Journal of Pragmatics* 12, 215-220.
- Grice, Paul.(1975), “Logic and conversation,” *Syntax and Semantics* 3, 41-58.
- Lakoff, George.(1986),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1987), “Cognitive models and prototype theory”, In Neisser, U ed., *Concepts and conceptual development: Ecological and intellectual factors in categor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63-100.
- Levinson, Stephen.(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Stephen.(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 MIT Press.
- Ward, Gregory·Julia Hirschberg.(1990), “A pragmatic analysis of tautological

이 정 애

- utterances,” *Journal of Pragmatics* 15, 507-520.
- Wierzbicka, Anna.(1987), “Boys will Be Boys: “Radical Semantics” vs “Radical Pragmatics.”” *Language* 63, 95-114.
- Wierzbicka, Anna.(2003), *Cross-Cultural Pragmatics, The Semantics of human interaction*,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Yoon, Kyung-Joo.(2003), “Constructing a Korean 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Ph.D. Dissertation*,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 Yoon, Kyung-Joo.(2007), “Korean Ethnopsychology Reflected in the concept of Ceng ‘affection’: Semantic and Cultural Interpretation,”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14-3, 81-103.

이정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61-756

전화 번호 : 063-270-2712

전자 우편 : leeja@jbnu.ac.kr

FAX : 063-270-2718

원고 접수일: 2010년 10월 30일

원고 수정일: 2010년 12월 8일

게재 결정일: 2010년 12월 15일

